

목 록

20231010082735.....	1
20231010082750.....	3

'그냥'이 아니라 '왜'

김유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긴 수염이 떠오르기도 하지? 정말 그렇게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 한 분이 마을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한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 아이는 할아버지 가슴팍까지 내려온 하얗고 긴 수염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안에 넣나요, 아니면 꺼내 놓나요?" 할아버지는 "예! 이 벼룩없는 놈!" 하고 소리치려다가 문득 자기도 궁금해 켰다. 왜냐하면 수염을 기른 채 몇 십 년 동안이나 살아왔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궁금증을 지녀 본 적이 없었거든. '허허, 그러고 보니 내가 정말 수염을 꺼내 놓고 잤다. 뵈쥬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알쏭달쏭하기만 했지. 결국 할아버지는 반쯤은 얼굴을 하고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글쎄다, 허, 참, 이 녀석, 별걸 다 묻는구나. 정말 궁금하다면 말이다. 오늘 밤에 한번 자 보고 내일 아침에 가르쳐 주마."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기 무섭게 이불자리를 펴고 누웠지. 이번 이불 속에 수염을 넣고 말 이야. 그런데 너무 갑갑하고 께룩해서 아무래도 수염을 밖에 내놓고 자야 할 것 같았어. '올지!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 놓고 잔 게 분명해!' 할아버지는 어른 수염을 이불밖으로 꺼내 놓고 눈을 감아 봤어. 그런데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어. 이불밖으로 내놓은 수염 때문에 만지 하면 하고 썰렁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야.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을 이루 수가 없었지. 수업을 애초부터니 갑갑
 하고, 이불 밖으로 겨내 놓으면 허전하고..... 할아버지는 밤새도
 록 수업을 불렀다 깨웠다 하느라고 한숨도 잘 수가 없었던단다. 물
 론 할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에 가르쳐 주겠다고 했던 아이들의 위
 속도 지키지 못했지. 이상한일 아니니? 분명 그런 할아버지 자신의
 수업을, 할아버지는 몇십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잠을 잤는데 말하
 야 그런데도 아바아 묻기 전까지 그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잤는지 기억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 물어본다고 한들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는 문제잖아. 정말 답
 없다고 기막힌 일이었지. 그뒤로 할아버지는 밤마다 수업 때문에 편하
 게 잠을 잘 수가 없었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시 너에게도 그런 수업이 있는지 말해야. 아이들
 한테 무슨 수업이 있냐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도누가 질문을 할때 가끔
 '그냥'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을거야. 바로 그 '그냥'이라는 말이 너의 수업이란단다. 아직도
 잘 모르겠대? 우리는 아무생각없이 '그냥' 지내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먹고, 그냥 자고, 그냥 노는 날 말이야. 어떤 때에는 봄이 와서 꽃
 이 피어도, 아침이 되어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도 아무느낌없이 그냥 출근보
 고 지나쳐 버리기도 하지 새들이 어떻게 짹짹 지어 날아오고, 구름이 어
 떻게 보였다가 흩어버리는지 몇 번이나 눈여겨보았니? 자신에게 또는 남들
 에게 궁금한 일을 몇 번이나 질문해 보았니?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고,
 어른들이 시키니까 그냥 했던 일은 없었니? 자기 안에 무엇이 없어서 아무
 것도 묻지 못하는 사람만 건전지를 들고 단축을 누르면 그냥 복춘처대는공

인형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아무생각없이 모든 순간을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네기 속 할머니지와 똑같아. 자기것이지만 자기 것이 아닌 귀찮은 땅고 있기까지 말야. '그냥 수면'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어느날 누가 "왜?" 또는 "어떻게?" 하고 물으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 아무리 자기가 한 일을 뒤돌아보고 생각해내려고 애써도 지나온 날들은 이미 멀리 사라져 버려서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지. 어느날엔가 너한테도 누군가가 물어볼지 몰라. 그때를 위해서라도 '그냥'이라는 대답이 아닌 무언가를 준비해야겠지?